

과연 사회주의는 실패한신인가?

yas

이곳 구체 속 강철 하늘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수천, 수백만번의 전쟁조차 인간에게 잔인함과 허무감을 가르쳐주기엔 역부족이었던것이다!



<https://youtu.be/tCA7J1qgBvg>

자, 생각해보자 우선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방법론의 갈등을 집어넣고 우리가 동의하는 이상적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결론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사회정의가 실현된 사회일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그점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서적 하나의 파트를 소개하고자한다.

1. 부의 창출과 증대는 오직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 재화 선점
 2. 미리점유된 자원과 노동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것
 3. 자발적 교환을 통한 부의 증대(그리고 모든 교환은 덜 필요한 사람에게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로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다)
2.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이모든것이 불가능하다
 1. 사회주의는 기존의 행위와 관련 없이 개인들에게 생산적 자산들을 무분별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2.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비입식자, 비소유자에게 유리하다
 3. 그렇다면 새로운 생산요소를 만들고 기존의 생산요소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약화로 이어진다.
 4. 거기에 더불어 계약활동의 횡수의 약화 또한 발생한다
 5. 이모든것은 행위의 비용 증가와 비행위의 비용 감소에 근간한다
 6. 시장 가격 없이 비용을 체크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7. 사회주의의 자본 관리인들은 주어진 생산방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의 의견을 들을수 없기에 이전에 가능했던

새로운 효율적인 방식의 자본 사용 방법을 알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비효율적 사용인것이다.

8. 산출의 집단적 소유는 기존에 비해 산출 방법의 질 향상에 불이익을 준다. 거기에 나태함과 게을러짐은 덤이다.

9. 사적 소유하에선 자본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가장 덜 필요한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로 그러나 집단적 소유는 결정 장치가 필요하다. 즉슨 기존 기업에서 결정하던 모든 행위가 정치적 결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승,패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직책에 있는자는 경제적 능력보다 정치적 능력과 모략등에 뛰어난 인물일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부재는 오히려 사회주의의 비효율과 상관 없으며 동시에 더욱더 발전된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된 비효율을 부를 이유이다